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019년 3월 19일(화)~3월 25일(월)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환경방문대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재무건설위원회 환경방문(도내동 청소차고지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는 3월 19일(화)부터 3월 25일(월)까지 7일에 걸쳐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가 4건 제출되었으며, 이연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심사 및 1/4분기 주요 업무와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도 펼쳤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은영)는 22일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 구입, 시설 운영, 직원 근무환경 등 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했으며, 화재나 수해 등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남형)는 21일 청소 분야의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소재 도내동 청소차고지를 방문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을 확인했다. 정남형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은영 의원의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으로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향후 의사일정으로는 제265회 임시회(4월 23일~4월 26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5월 28일~6월 28일)가 있을 예정이다.

은평구의회 의원 불광천 봉사활동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는 4월 1일 불광천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 및 주변 시설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4월 6일 개최되는 벚꽃축제·벚꽃길 걷기대회에 앞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장소인 불광천변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참여에 기여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실시되었다.

의원들은 불광천을 도보로 걸으면서 산책로와 주변 녹지대에 버려진 담배꽂이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보전 캠페인도 실시하며, 각종 시설 이용 주민들과 담소의 시간을 통해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기도 하였다.

은평구의회 이연옥 의장은 “쓰레기와 함께 양심까지 버리는 일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안타깝고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더 큰 환경문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구민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클린은평’을 만들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힘을 예정이다.



은평구의회 불광천 봉사활동